

어린이책 들춰보기

이땅에 신들이 처음 오신 때

김용덕 지음

문학아카데미 / A5신 / 212면 / 3400원

우리나라의 하늘과 땅, 해와 별 그리고 사람들에 얽힌 신화를 동화로 엮었다. 1장 이땅을 처음 만든 신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2장 고구려, 신라 등 나라를 세운 임금님들의 신화 3장 산과 들에 머물며 우리를 보살피는 신들과 4장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우리의 복을 빌어주는 자애로운 신들의 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절대전능의 초월자인 서구의 신들과는 달리 함께 씹고, 같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찬란한 비상을 잃지 않았던 우리의 신을 통해 옛조상의 슬기와 그 당시의 사회상까지 엿볼 수 있게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황순원 외 지음

동쪽나라 / A5 / 240면 / 2500원

아이들의 순수하고 맑은 꿈을 담아 전세계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면서 명작으로 평가받아온 작품들을 국민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게 편역했다. 알퐁스 도데의 「별」,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위더의 「플란더즈의 개」 그리고 국내작품으로 황순원의 「소나기」, 정채봉의 「오세암」 등 모두 9편을 실었다. 그중 「별」은 프로방스지방의 한 목동이 짝사랑하는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와 모닥불 앞에서 밤을 새가며 아름다운 별에 관해 이야기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단편.

바다는 왜?

유광일 엮음

예림당 / B5 변형 / 126면 / 4000원

지구의 ⅔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량과 자원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바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만화학습서. 바다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으며 또 파도·해일은 왜 일어나는가 등 바다의 갖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물고기아파트, 해저목장, 해저농장, 바닷속 식물 등 신비로운 바다밑 세계를 원색의 사진과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바다에 묻혀 있는 석유와 가스의 막대한 양과 탐사방법 등도 소개, 왜 바다를 '자원의 보고'라 하는지 의문도 풀어준다.

엄마의 목소리

김상삼 지음

아동교육문화연구회 / A5 / 198면 / 2700원

산들이 어깨를 맞대고 우뚝우뚝 솟아있는 산골 국민학교에 다니는 용찬이는 아주 어렸을 적에 엄마가 도회로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앞모 보는 아버지와 늙은 할머니와 함께 외롭게 살아간다. 용찬이의 꿈은 유명한 권투선수가 되는 것. 옷통을 벗고 하는 경기여서다. 왜냐하면 어깨의 까만 점을 보고 엄마가 찾아오리라는 기대 때문. 그러던 어느날 용찬이는 권투선수가 아닌 야구선수로 발탁이 되는데...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참나무선생님

박상규 지음 / 이은홍 그림

산하 / A5신 / 238면 / 2500원

이땅 어린이들의 참된 삶의 모습을 그려보인 현직국민학교 교사 저자의 창작동화집. '참나무선생님' '꿀불건세상' '통일이 바쁜 사람들' 등 6편이 실려 있다. 그중 표제동화인 '참나무선생님'은 새로 전임해온 진영실선생님의 참교육 실천을 보여주는 내용. 진선생님은 그동안 점수위주의 공부를 받아온 아이들에게 사랑되는 공부를 가르친다. 가령 시험지풀기 외워주기 등의 숙제가 아닌 동화책읽기 일기쓰기 집안일돕기 등을 숙제로 내준다. 성적이 떨어진다든 학부모들의 우려속에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옮겨가는데...

유앙과 대나무사다리

연점숙 편역

창작과 비평사 / A5 / 226면 / 2500원

오랜기간 서방의 식민지였던 탓에 '동양속의 서양'이라 불리는 필리핀의 민화 46편 모음. 망고 야자 바나나 등 열대성 과일과 원숭이 빨소 등 열대동물들에 얽힌 재미난 전설이 기우나 풍토, 문화가 우리와는 크게 다른 이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부 필리핀 사람들의 우주관·세계관을 엿보게 하는 민화를 2부 꽃 나무 물고기 등에 얽힌 이야기 3부 필리핀인들이 사랑하는 인물인 유앙의 신나는 모험담 등으로 구성. 각 민화마다 필리핀 특유의 여유와 해학 웃음이 가득하다. 창비아동문고 120권제.

꿈꾸는 황금사자별

김태영 지음 / 김은주 그림

현암사 / A5 / 232면 / 3800원

까만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별자리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국내처음의 별자리동화. 초겨울 북쪽에 떠있는 W모양의 카시오페이아자리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노골적으로 뽐내고 다니던 옛날 에티오피아의 왕비 카시오페이아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미움을 사 죽고난 다음 거꾸로 매달리는 벌을 받아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밖에도 물고기자리, 페르세우스자리, 전갈자리 등의 별자리마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의 사랑과 모험, 그리고 복수극이 흥미롭게 얽혀 있다.

지하철을 탄 천사

노경실 지음

대원사 / A5신 / 224면 / 2500원

「아빠의 생일」 「하나님이 보낸 선물」 등의 동화집으로 친숙한 노경실 선생님의 최근 창작집. 이책에는 '악마의 눈물' '지하철을 탄 천사' '친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등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쓴 정의롭고 풍성한 이야기 30편이 실려 있다. 그중 '하늘 아래서'는 눈멀고 귀먹고 정신박약한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소중한 사람들임을 일깨우는 글. 짝꿍 현수가 어렸을 적의 화상으로 걸모습이 흉칙해 말조차 건네기 싫다고 했다가 헤리는 엄마에게 꾸중을 듣는다. 화가난 헤리는 제방에서 울다가 잠이 드는데, 문득 꿈에서 천사가 된 현수를 만난다.